



(주)하림

복시즌 앞두고 '옛날 시골닭 백숙' 출시



복시즌을 앞두고 (주)하림(대표이사 김홍국)에서 웰빙형 보양식 '옛날 시골닭 백숙'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제품은 최고급 영계에 각종 고급 한방재료를 넣어 복날 몸보신을 원하는 소비자를 타겟으로 출시됐다.

'옛날 시골닭 백숙'은 신선한 국산 영계에 수삼, 녹각, 오가피, 황기, 당귀, 구기자 등의 한방재료를 적절히 배합해 만든 보양식품으로 특히 별도의 부재료를 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옛날 시골닭 백숙'의 가격은 1,100g이상 1팩에 6,000원 선이며 냉장보관식품이다.

한편 (주)하림은 이번 '옛날 시골닭 백숙' 출시와 함께 전 매장 시식행사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제1회 하림농가 단합체육대회 개최

(주)하림은 지난 5월 13일 하림 계열사인 한국쌈뽕의 잔디구장에서 하림 사육농가협의회(회장 이광택)와 공동으로 제1회 하림 사육농가 단합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회사와 사육농가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열린 마음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날 행사

에는 사육농장주 및 가족 240명과 본사 임직원 60명 등 300여명이 참석, 흥겹고 유쾌한 한 때를 보냈다.

이문용 사장은 대회사를 통해 "하림의 성장은 여기 모인 사육농장 여러분의 땀과 성원 덕분"이라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리 회사의 자산이자 주요 고객은 사육농가와 대리점이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여 함께 발전하자"고 말했다.

이에 사육농가협의회 이광택 회장은 "오늘과 같은 뜻 깊은 행사가 치러지는 것은 창사이래 처음이어서 매우 뜻깊고 감격스러운 날"이라며 "회사와 농가가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보다 긴밀한 관계로 발전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날 체육행사는 줄다리기, 축구, 배구, 릴레이 등 4개 종목으로 진행됐으며, 전복팀이 줄다리기, 릴레이, 축구 등 3개 종목을 휩쓸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체육대회가 열리는 중간에 곳곳에서는 이문용 사장을 비롯한 회사 임직원들과 농장주들 간에 즉석 간담회도 열렸다.

하림바비큐 시리즈 출시

(주)하림은 '고구마치즈 골드'에 이어 두 번째 테이크 인(TAKE-IN, 전문식당에서나 먹을 수 있는 수준의 음식을 집에서 즐길 수 있게 함) 제품인 '하림바비큐 시리즈 10종'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하림바비큐 시리즈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맛볼 수 있었던 정통 바비큐의 맛과 향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불에 직접 두 번 구운 제



품으로 닭다리, 통날개, 북채 등 여러 부위별로 제품화했다.

(주)하림은 그동안 전문패스트푸드점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바비큐의 맛과 향을 가정이나 일반 업소, 급식장소 등에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주)하림은 바비큐 치킨의 출시를 기념하여 제품 리플릿 등의 홍보와 다양한 시식행사는 물론, TV광고를 계획하는 등 대대적인 런칭 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주)마니커

호남사업본부 출범



(주)마니커(대표이사 한형석)는 지난 5월 8일 호남사업본부 출범식 및 육계생산 전문업체인 (주)아성과 전략적 업무제휴 조인식을 체결했다.

(주)마니커 호남사업본부는 지난 2002년 출범한

영남사업본부에 이어 두 번째의 지방 사업장으로 천안 이남의 충청지역과 호남지역, 제주지역을 총괄하게 된다.

호남사업본부의 출범으로 (주)마니커는 수도권을 담당하는 본사와 영남권 영업을 책임진 영남사업본부가 삼각형으로 결합된 광역 영업체제를 완성시켰다.

이로써 (주)마니커는 지난해 창립 20주년 성년선포식을 통해 공표했던 '닭고기 사업의 광역화, 전문화, 세계화'라는 장기비전 중 광역화에 더욱 집중하는 한편, 향후 과제인 전문화와 세계화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주)마니커는 이날 호남사업본부의 판매망 확충과 안정적인 물량 조달을 위해 이 지역의 육계생산 전문업체인 (주)아성과 전략적 업무제휴 조인식을 체결했다.

(주)마니커는 전북 김제에 위치한 (주)아성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호남지역 공략을 가속화하고 전국적인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서 업계 선두권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유상증자 청약 완료

(주)마니커가 100만주(액면가 5천원)의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난 5월 16일에 마감한 실권주 청약결과 1만 4,594주 청약에 755만7,620주가 신청, 최종경쟁률이 517대 1에 달했다.

이번 실권주 청약에는 청약 증거금이 748억원 이상 몰려 투자자들이 (주)마니커의 성장성과 시장 전망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한편 (주)마니커는 6월 1일자로 주식 액면분할을 단행하여 상장함으로써 유통거래의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동우

코스닥 상장을 통한 재도약



(주)동우(대표이사 정창영)가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재도약의 길에 접어들었다.

(주)동우는 1993년 회사를 설립하여 1994년 당시 농림수산부로부터 종계에서 유통까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통합생산체제를 갖춘 육계 계열화 업체로 지정받아 국내의 닭고기 산업발전, 농가수익 보장, 생산성 향상,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앞장서 왔으며, 완전 계열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비전을 목표로 묵묵히 한 길을 걸어 2005년에는 도계장 단독 도계순위 2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2004년 당기순이익 75억6천1백만원, 2005년에는 76억9천3백만원 등의 경영성과를 일궈 내 국내 닭고기 산업에서 내실있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주)동우의 이번 상장 선언은 식문화가 선진국화 되면서 닭고기 소비량 증가(2005년 국내 1인당

육류소비량중 닭고기가 1인당 8.0kg로 1인당 6.6kg의 쇠고기 소비량을 추월) 및 시장의 다변화, 도계장의 규모화 등의 이유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재무구조의 안정성 및 수익성에서 타사에 비해 경쟁력이 우위에 있으며, 성장성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창영 대표이사는 이번 계기를 제 2도약의 시발점으로 삼아 현재 업계 1위는 아니지만 기업에 대한 평가를 받고 사회의 기업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이로 발생한 자금을 통해 사육기반시설 확충, 품질향상을 위한 설비를 신축하여 수입산 닭고기에 대한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유하고 더 나아가서는 일본, 중국, 홍콩 등의 닭고기 수입국에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동우 닭고기를 수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주)한일농원

대표전화번호 변경

(주)한일농원(대표이사 차상협)은 지난 5월 10일자로 본사 대표전화번호와 팩스번호가 변경됐다. 주소는 전과 동일하며, 변경된 전화 및 팩스번호는 아래와 같다.

- 주소 : 경기도 오산시 청학동 산 9-1
- 전화 : (031)377-9300
- 팩스 : (031)377-9309 

다섯 가지 행복의 조건

1. 건(健) : 흐트러지지 않은 건강을 가졌다는 점
2. 처(妻) : 아침 밥상을 함께 할 아내가 있다는 점
3. 사(事) : 아직도 일을 상의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점
4. 재(財) : 크지는 않으나 무너질 염려가 없는 주택을 가졌다는 점
5. 우(友) : 아직도 만나자는 벗이 있다는 점

※ 위와 같은 다섯 가지를 잘 갖추고 있다면 무조건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어느 명사의 충고이다.